생태계 지불제, 사찰림 적용 가능성은?

조계종 사회부 · 환경위, 8월 25일 토론회

불교계엔 생소한 정책 '관심'
보호에 따른 피해 지원 골자
정책 관련 불교계 역할 모색
"문화기능 확대"등 논의 필요


조계종 사회부와 환경위원회가 8월 25일 '문화생태계 보존을 위한 불교계 역할'을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환경부가 추진 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와 관련, 전통사찰 및 사찰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불교계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가 시행초기 단계인 만큼, 제도의 취지와 개선점, 불교계 적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들을 내놨다.

조계종 사회부와 환경위원회가 8월 25일 '문화생태계 보존을 위한 불교계 역할'을 주제로 진행한 '2021년 환경정책 토론회'는 아직 불교계에는 생소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오충현 동국대 생태계서비스연구소장은 해당 제도의 개념과 취지를 토대로, 불교계와의 연관성을 짚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자발적 계약에 근거하며, 소유자가 환경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 교수는 "사찰림의 경우 현재로서는 토지소유와 관련된 보상은 어렵다"며 "다만 사찰림 보전활동이나 사찰림에서 진행되는 문화서비스 증진활동 등과 관련한 시행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불제의 근거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이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와 관련된 직접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기능 보전과 증진에 관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상, 인건비 및 경비에 대한 지원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사찰 차원에서 앞으로 행위 보상과 관련된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문화부분의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으로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사찰림과 연계한 휴양 · 치유 · 명상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불제와 연동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도 "사찰림을 보호함으로써 증대된 생태계서비스 총량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불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환경위원장 무관스님은 "생태계보존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계 사찰림을 비롯한 전통사찰 보존지의 가치는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 가치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에 대한 논의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제언들을 향후 심도깊게 논의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제도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결집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민추본 서명캠페인 동참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이 진행 중인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캠페인'(이하 캠페인) 일만이천 서명운동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주요 소임자스님들이 동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26일 캠페인 서명식을 열고 직접 동참을 알린 데 이어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 주요 소임자 스님과 재가신도를 대표해 주윤식 중앙신도회장도 잇따라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정전협정 체결 68년이 되는 7월 27일부터 금강산 신계사 복원 14주년 기념일인 10월 13일까지 이어진다. 금강산 일만 이천 봉우리마다 불자들의 평화 발원을 담겠다는 취지로,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민추본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서명대를 비치한 데 이어, 주요 사찰에도 서명대를 비치할 예정이다. 서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며, 오프라인 서명의 경우 민추본 홈페이지에서 서명용지를 내려 받거나 사무처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

민추본은 "취합된 서명 명단은 추후 통일부에 전달된다"며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02)720-0531

송지희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25일 서명 캠페인에 동참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플랫폼 역할 강화…수행결사 전국 확산

전국비구니회, 8월 25일 소임자 워크숍

12대 집행부 반회기 맞아
사업 성과 점검 · 과제 제시
비구니회 역할 확대 주력



올 11월 출범 반회기를 맞는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제12대 집행부가 앞으로 각 분야에서 비구니스님들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간다.

전국비구니회는 8월 25일 2021년 하반기 소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간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에 이어 앞으로의 추진과제를 공유했다.〈사진〉 코로나19 사태에도 내실 강화와 대사회 역할 강화 등 각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지난 성과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구체적인 활동 목표를 설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워크숍은 각분야 소임자 스님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활동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전국비구니회는 향후 각 분야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 강화에 주력한다.

총무부(부장 현진)가 발표한 업무 추진과제에 따르면 전국비구니회는 올해 관련자료의 목록화와 전산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내년부터 후계사 계승을 위한 사찰과 비구니스님간 연계서비스, 직능별 불자회 파악 후 법사 스님과의 연결, 지회 활성화 과정에서의 법사 스님 발굴 및 활동 지원 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비구니스님 대상 소임플랫폼을 시도한 데 따른 후속 과제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스님들을 대상으로 조직 내 소임은 물론, 각 사찰 및 단체 소임자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처음으로 시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처음 선포한 '비구니 승가공동체 수행결사'의 전국 확대도 추진한다. 수행결사는 비구니 수행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4월 발족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재는 잠정 중단된 채 특강으로 대체된 상황이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승가공동체 수행결사의 본 뜻을 이어 코로나 변화상황에 따른 전국 확대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회별 릴레이 형태로 전국 순회 결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수행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본각 스님은 "전국비구니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각 분야에서 애쓰시는 소임자 스님들의 원력과 노력 덕분"이라며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과제를 설정해 더욱 발전하는 비구니회로 거듭나기 자리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잘한 것은 칭찬하고 부족함은 채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네팔 홍수 피해지역에 구호품 전달

지구촌공생회, 7월 중
8개 마을에 긴급 구호

지구촌공생회가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 신두팔촉 지역 헬람치 구 8개 마을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했다.

지구촌공생회는 최근 네팔 현지에 수재민들이 임시 거처로 사용할 텐트와 지붕 자재, 태양광 발전기, 우비 등의 구호품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긴급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지 피해상황을 조사해 산악지대 8개 마을(탈로, 할데, 찌우레칼카, 짤세, 가네쉬 버걸, 나코데, 도링, 칼츙)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속한 구호활동에 나섰다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덕림 스님은 "이번 네팔 홍수 피해 지원에 대한 후원회원의 성원을 접하며,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네팔 수재민들이 아픔과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길 기원하며, 지원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구촌공생회는 향후 네팔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지 주민들과 협력을 토대로 홍수로 망가진 지역 복구와 쌀과 녹두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구촌공생회는 지난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에도 14개 지역에 6차례에 걸쳐 긴급 식수 및 구호품 지원에 나선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달빛내륙철도 환승역할의 극대화를 위한 'KTX합천해인사역' 유치를 2천만 불자가 다함께 염원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달빛내륙철도 노선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불어 남부내륙철도과 교차되는 합천 해인사역이 반드시 설치되어 2천만 불자들의 성지순례는 물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세계문화유산을 탐방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한국불교는 1,700여 년 간 우리 민족의 숨결과 함께 역사와 전통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을 비롯해 그 속에 담겨있는 소중한 성보 문화유산은 우리 모두의 것으로 다함께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가치와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합천 해인사와 가야산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포함한 수많은 국보와 보물 등 각종 문화재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남부내륙철도와 달빛내륙철도가 교차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경유할 수 있다면, 숭고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통로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합천 해인사역이 영호남 교류 발전은 물론 동서남북의 대통합을 위한 환승역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보다 균형 있는 국토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립공원 및 문화유산 탐방의 접근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세계인의 발길이 닿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2천만 불자들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문광부 등 관련부처 기관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남부내륙철도의 환승역과 합천 해안사역 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기 2565(2021)년 8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